

양림동 미학 담긴 한옥 전시관 '갤러리온' 문 연다

김정태·이경희 부부 합심작
1974년 만든 주택 개조 등
12일 첫 오프닝 행사 진행
벽화 그리는 '라이브페인팅'
"경계없는 갤러리 만들고자"



광주 남구 양림동에 '갤러리온'을 개관하는 김정태 대표(왼쪽)와 개관전시에 참여하는 이종배 작가.

"신진작가들에겐 문턱 낮은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작품 판매 수익금 일부는 기부하는, 그런 선한 전시관을 만들고 싶어요."

광주에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시민 김정태씨는 아내 이경희씨와 함께 남구 양림동에 평생의 꿈이 담긴 공간을 마련했다. 오는 12일 오프닝 행사를 시작으로 개관하는 '갤러리온'이다. 부부는 봄날과 어울리는 '선한 전시관'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포부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활동이 제한된 지난 3년간 온라인상 비대면 콘텐츠가 나온 틈에 당시 김 씨도 온라인 형태 갤러리를 만든 적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배경음으로 해, 전시장에 걸린 듯한 연출로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식. 10분 내외 분량 영상 1건이 전시회 1회 개념으로 조화

수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었지만, 최근까지 100여건 영상을 업로드했다.

재미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훗날 유튜브 활동은 '갤러리온' 시초가 됐다. 갤러리 이름 '온'을 온라인의 '온'에서 따왔다는 설명도 재미를 준다. 이번에 오프라인으로 문을 연 '갤러리온'의 기획전 또한 온라인에서 동시에 같은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유튜브 업로드를 지속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멍 때리면서 작품 영상을 보는 일이 휴식과 같은 즐거움을 줬다. 다른



갤러리온 전경.

누군가와도 이런 즐거움을 나누고파 작품 영상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표인부, 김영일, 이민 등 나와 친분이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차례로 소개했고 단체 전시도 진행한 적 있다"며 "온라인으로 시작한 '갤러리온'이 오프라인으로 확장된 셈이다"고 말했다.

1974년 지어진 주택 집을 개조한 '갤러리온' 건물은 마치 골목을 오간 수많은 이들의 흔적이 깃들어 있다. 레트로한 감성의 붉은 벽돌과 한옥 지붕을 그대로 뒤

졌한 감성을 살렸다. 한때 판화와 회화 기법을 접목해 자연의 순수함을 독창적으로 표현해 온 박구환 화백이 작업 공간과 전시공간으로 사용된 적 있을 정도로 '갤러리온' 건물 역사도 남다르다.

김 씨는 "역사문화마을 양림동과 조화를 생각해 한옥 외관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신경 썼다. 누구나 쉽게 발을 들일 수 있도록 담을 허문 것도 포인트"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신진작가들이 쉽게 전시를 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

고 판매된 전시작 수익금 일부는 자립형 소년을 위해 후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일 오후2시 열리는 오프닝 행사에 LOL크루가 직접 라이브페인팅을 선보인다. LOL크루는 광주 문화전당역 인근 충장로 한 건물에 존재는 벽화를 그린 이종배 작가를 필두로 그의 친구 댄스 가수 팝핀현준과 그래피티 예술가 나관범 작가가 뭉친 그룹이다. 이들 3인은 2400×4800 크기 야외 벽면에 실시간 벽화를 그리는 동시에 갤러리온 개관 전시를 장식할 예정이다.

갤러리온 개관전에 참여하는 이종배 작가는 "지난해 하반기 광주에 거주지로 옮기고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갤러리온 개관 전시에 참여하게 됐다. 경력 화가뿐 아니라 누구나 전시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갤러리라는 측면에서 예술관이 잘 맞아 개관행사에 참여하게 됐다"며 "어느 지역보다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광주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갤러리온은 남구 양림동 157-10에 있다. LOL크루가 참여하는 갤러리온 개관 전시는 오는 5월26일까지 관람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광주시립교향악단 '교향악축제 프리뷰; Babi Yar'

24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3번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오는 24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383회 정기연주회 '교향악축제 프리뷰; Babi Yar'를 펼친다.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초연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3번, 바비 야르(Babi Yar)를 호평에 힘입어 반년 만에 재연한다.

이날 광주시향은 예술감독 홍석원의 지휘, 피아니스트 신창용과 함께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협주곡 2번'으로 포문을 연다. 공연 후반부에는 베이스 김대영, 노이 오페라코러스와 함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3번 바비 야르(Babi Yar)'가 연주된다. 광주시향은 지난해 이 곡의 초연을 성공적으로 마쳐 과감하고 수준 높은 연주 역량을 선보인 바 있다.

협주곡 협연자 피아니스트 신창용은 2018년 지나 바카우어 국제 콩쿠르 한국인 최초 1위, 2017년 서울국제음악콩쿠르 1위, 2016년 힐튼 헤드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하며 이름을 알렸다. 2022년, 북미 최고 권위의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레이먼드 E. 버크 심사위원상을 받았다.

교향곡 협연자 베이스 김대영은 특유의 색채감 있는 연기력과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호평받고 있다.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극장과 바이마르 국립극장 전속 솔리스트를 역임하고 현재 유럽과 한국에서 활동 중이다.

광주시향은 광주 공연 후 곧바로 예술의전당(서울)에서 펼쳐지는 2024 교향악 축제에 참여한다. 공연은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같은 출연진과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광주시향은 지난 교향악축제에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과 11번을 연주해 역대급 호연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올해 교향악축제에서 조명하는 작곡가가 '쇼스타코비치'인 만큼 클래식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올해 36회를 맞이한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는 전국 23개 교향악단과 국제 콩쿠르 수상자,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에서 활약하는 젊은 연주자들이 대거 참여하며 고전부터 현대 창작곡에 이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예정이다. 예술의전당 디지털 스테이지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 중계로도 감상할 수 있다.

광주시향의 '교향악축제 프리뷰; Babi Yar' 공연은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입장권은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며 초등학생부터 입장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호남조각회 단체전시 '지각하는 형상_일루전'

10일부터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은 오는 10일부터 호남조각회 회원들을 초청해 '지각하는 형상_일루전(ILLUSION)' 전시를 연다. 제32회 호남조각회전으로 설치, 조각, 평면,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의 예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호남조각회는 호남대학교 조각전공자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단체다. 이번 전시는 조각 분야에 선도적 역할로 전국 곳곳에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제목 '지각하는 형상_일루전'은 '지각하는 작용이 반응하는 형상' 들은 현실처럼 보이더라도 흐릿함에 가깝다면 예



김대승 작 부부.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 제공
술의 본질에서는 일루전(illusion·환상)

이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입체감과 원근감, 공간감 등의 조화를 나타내는 일루전은 지각하는 형상을 만나 반응하고 그 내용을 담아준다.

새롭고 현대적인 AI, 미디어, 최첨단 기술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동시대 예술, 조형의 흐름은 어떤 자리의 영역에서 재생산되고 표현되고 있는가. 이번 전시는 다양한 형상과 주제의 형태로 표현되는 메시지들을 작가들의 작품에 담고 그 메시지를 전한다.

전시 참여작가는 김광례, 김대승, 김상욱, 김숙민, 김지은, 박성문, 선명희, 양훈섭, 우정호, 이병선, 정숙경, 조성태, 천기정, 최용석, 허서형 작가다.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열린다. **도선인 기자**

ACC서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작가를 만나다

13일 극장3 '...편한 북토크' 개최
9일부터 도서관서 일러스트 전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인기 도서 '불편한 편의점'의 저자 김호연 작가를 초청, 'ACC 도서관과 이야기: 불편한 편의점, 편한 북토크'를 오는 13일 ACC 극장3에서 개최한다.

이날 김 작가는 '소설가의 삶과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이라는 주제로 시민을 만난다. 김 작가는 지난 2013년 데뷔작 '망원동 브라더스'로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한 후 영화와 만화, 소설을 넘나드는 다양한 분야의 스토리텔러로 영화 시나리오 작가부터 '불편한 편의점'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까지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골목 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편의점을 배경으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희로애락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담아낸 '불편한 편의점'은 주요 서점



종합 베스트셀러 1위, 국립중앙도서관 '2022 올해의 책'에 선정된 인기 도서다. 1·2권 통합 150만부 판매 기록을 세웠으며, 현재 미국,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 21개국에서 번역돼 출간됐다.

또 ACC는 책이 단순히 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표지나 삽화 등을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합쳐진 복합 콘텐츠를 알리고자 미니 원화전도 함께 기획했다.

'ACC 도서관과 이야기'와 연계한 'ACC 도서관 미니 원화전: 불편한 편의점 일러스트展'이 9일부터 두 달간 ACC 도서관 이벤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반지수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불편한 편의점' 표지의 사계절 에디션을 포함해 다양한 원화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4월은 '도서관 주간(12-18일)'과 '도서관의 날(12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23일)'이 있는 달"이라며 "ACC는 다양한 도서관 행사를 통해 독서 문화를 확산하고, 이용자와 ACC 도서관이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